

벤츠 최고급 리무진 '더 뉴 마이바흐 S 클래스'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국내 공식 출시한 S 클래스 최상위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클래스' 전면부 모습. 이번 모델은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580 4매틱으로, 2015년 이후 6년 만에 선보인 완전변경 모델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공>

‘궁극의 럭셔리’ 뒷좌석에 반했다

‘퍼스트 클래스’급 인락함 77mm 길어진 무릎 공간 리클라이너로 편안하게 헤드레스트 쿠션·히팅 기능 여닫기 쉬운 전동모터 문 부가세 포함 2억6060만원



12.8인치 OLED 디스플레이와 3D 계기반을 포함해 총 5개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탑재된 앞좌석(왼쪽)과 마이바흐 브랜드 최초로 ‘벨트 피더’ 등 첨단-안전사양이 적용된 뒷좌석.

행(뒷바퀴 중심부터 차체 끝까지 거리)로 완벽한 세단의 비율을 구현했다. 전면부는 크롬 처리된 핀이 장착된 보닛과 세로로 곧게 뻗은 입체적인 직선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마이바흐만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웅장함을 더했다. 측면부는 C필러의 마이바흐 브랜드 엠블럼과 전용 휠이 고급스러움을 더했으며, 후면부는 2개 색으로 나눠진 테일 라이트와 마이바흐 전용 리어 범퍼, 배기 파이프가 장착돼 우아함을 표현했다. 실내는 중앙의 12.8인치 OLED 디스플레이와 3D 계기반을 포함해 총 5개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탑재됐다. 익스클루시브 패키지가 기본 적용된 시트는 정교한 다이아몬드 문양의 나파 가죽으로 마감됐고, 루프 라이너는 고품질 다이나미카 극세섬유로 마감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더 뉴 S 클래스 롱휠베이스 모델보다 18cm 길어졌고, 무릎 공간도 최대 12cm 증가했다. 특히 뒷좌석 탑승객에게 ‘퍼스트 클래스’에 견줄 안락함을 선사하기 위한 첨단-안전사양과 편의사양

도 돋보인다. 마이바흐 브랜드 최초로 뒷좌석 ‘벨트 피더’가 적용돼 뒷좌석에 착석한 뒤 문을 닫으면 자동 돌출됐다. 벨트 착용 후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뒷좌석에 장착된 ‘전동식 컴포트 도어’는 전기 모터가 문을 제어해 경사면에서도 버튼을 누르면 문을 편리하게 여닫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헤드레스트에는 쿠션과 함께 탑승자의 목, 어깨 히팅 기능이 내장돼 뒷좌석 탑승자에게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앞좌석 동반석 시트를 최대 77mm 앞으로 움직여 뒷좌석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고, 발 받침대를 펼쳐 다리를 편 채 누워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580 4매틱 가격은 부가세 포함 2억6060만원이다. 마크 레인 제품-마케팅 부문 총괄 부사장은 “올해는 마이바흐가 첫 차를 출시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마이바흐는 최상류층의 선택받은 자동차로서 높은 수준의 수작업과 최상의 디자인으로 럭셔리 브랜드의 정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기아 전기차 유럽 질주

2014년 판매 시작 7년만에 누적 20만대 달성

현대차·기아가 전기차 최대 시장인 유럽에서 누적 판매 20만대를 달성했다. 올 하반기에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가세하며 판매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현대차·기아의 IR 사이트 현지 판매 실적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유럽 시장에서 올해 5월까지 총 22만7919대(현대 13만1719대·기아 9만620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작년 누적 10만대를 달성한 데 이어 1년 만에 20만대를 넘어섰다. 2014년 서울EV로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를 시작한 이후 7년 만에 이룬 성과다. 2014년 662대에 불과했던 전기차 판매량은 2017년 처음으로 연간 1만대를 넘었고, 2018년 코나EV와 니로EV가 투입되며 매년 2배씩 늘어 작년에는 9만5917대를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9.5% 늘어난 4만3865대가 판매돼 처음으로 연간 10만대 판매를 넘어설 전망이다. 차종별로는 코나EV가 누적 판매 9만1302대를 기록했고, 니로EV(5만8774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아이오닉(구형)EV 4만3대, 쏘울EV 3만7426대 순이다. 현대차그룹의 첫 전용 전기차인 현대차 아이오닉 5는 유럽 시장에서 지난달 처음으로 414대가 판매됐다. 아이오닉 5는 유럽에 배정된 3000대 물량이 사전 예약 첫날 ‘완판’되며 인기를 예고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기아의 전용 전기차 EV6도 투입된다. 기아 EV6 역시 유럽에서 사전예약 7300대를 기록했고, EV6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잠재 고객만 2만6000여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기아 새 엠블럼 적용 ‘더 2022 K5’ 출시

기아가 지난해 7만9072대가 팔리며 중형 세단 부문 판매 1위를 달성한 ‘K5’의 연식 변경 모델 ‘더(The) 2022 K5’를 출시하고 판매에 들어갔다.



28일 기아에 따르면 ‘더 2022 K5’는 기아의 신규 엠블럼을 적용하고, 주 고객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화 하면서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수평 패턴의 타이거 노즈 라디에이터 그릴을 상아 이빨을 연상케 하는 샤크 투스(Shark Tooth) 패턴으로 변경하는 등 고급감을 높였다. 또 그릴 재질도 블랙 하이그로시(고광택) 도장을 적용해 강인한 인상을 더했다. 트림과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기존 해당 트림에 없던 편의사양을 기본 적용했다. 기본 트림인 트랜디는 가죽-열선 스티어링 휠, 프레스티지는 전방 주차 거리경고 사양을 기본화해 상품성을 높였다. 노블레스와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는 기존 선택 사양으로 운영하던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을 기본 적용해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더 2022 K5 판매가격은 가격은 2.0 가솔린 기준 ▲트렌디 2381만원(1.6 가솔린 터보 2459만원) ▲프레스티지 2631만원( / 2749만원) ▲노블레스 2822만원( / 2940만원) ▲시그니처 3092만원( / 3171만원)이다. 2.0 하이브리드 모델은 ▲트렌디 2777만원 ▲프레스티지 2975만원 ▲노블레스 3168만원 ▲시그니처 3384만원으로, 2.0 LPI 모델은 ▲프레스티지 2675만원 ▲노블레스 2940만원 ▲시그니처 3087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대한민국 동행세일’ 참가

금호타이어는 다음달 11일까지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동참해 주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해당 기간 오프라인 대리점과 온라인몰, 렌탈서비스까지 전 판매채널에서 할인 및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선 타이어프로를 비롯해 오프라인 대리점(일부 대리점 제외)에서는 금호타이어 및 타이어프로 홈페이지에서 발행하는 ‘3+1 쿠폰’(300명 한정), ‘20% 할인 쿠폰’(무제한)을 활용해 주요 제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타이어프로 온라인몰에서는 주요 프로모션 대상제품은 20%, 온라인몰 전용제품인 KU27은 4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모든 제품을 2분 이상 구매시 교체대행 및 방문장착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또 렌탈서비스 ‘또로로로 서비스 렌탈’을 신규 가입할 경우 등록비 면제와 렌탈료 1회(7회차) 면제를 제공하고, 모든 가입 고객에게 풀당박스를 증정한다. 프리미엄 제품인 ‘TA91’, ‘TA51’, ‘HP71’ 등을 4분 가입할 경우 캠핑의자도 추가 증정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무무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자동차제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가(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